

투데이 칼럼

북한, 남한 말과의 전쟁

남한의 '표준어'를 북한에선 '문화어'라고 부른다. 이 북한 문화어는 평양말이 기준이다. 우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북한에선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 계층에서 쓰는 말'을 문화어라고 한다. 최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했다.

이유가 우리 드라마 등을 보고 따라하는 남한말, 즉 우리말이나 말투 사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북한 당국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분야도 있다. 바로 음악과 공연이다. 기존의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편곡하거나 남한 노래 멜로디도 차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제와 변화의 기로에 선 북한이다.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을 배격하며 민족 고유 언어를 쓸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사투리를 쓰지 말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어가 바로 '평양 문화어'이다.

북한은 언어 사용에 엄격하다.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발전의 합법적 요구라고 하면서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 문화어 보호법 채택이 사상과 제도,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담보 마련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의 남한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식 말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남쪽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오빠'라고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고 써야 한다.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 불러야 하고, '족팔리다'는 표현은 금지이고 '칭피하다'고 써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남한식 말투는 어떤 경로로 퍼질까.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영화도 접할 수 있었지만 유독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폭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 북이 같

은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한류에 대한 통제와 단속, 처벌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미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언어 습관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처럼 '평양 문화어 보호법'까지 채택하며 한류 차단에 나섰지만 막상 당국 차원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 일부를 차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말 신년 경축 대공연에서 신인가수 정홍란이 부른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노래가 있다. 1월과 2월 사이에 나오는 간주에 의혹이 제기됐다.

가수들의 군무와 함께 10초 정도 흘러나온 이 멜로디가 2017년 발표된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 '퀵 컷'의 한 부분과 같은 전개를 보인다.

'우리를 부러워 하라'는 1990년대

에 등장한 노래다. 2010년 청봉악단이 불렀을 때와 비교해도 간주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한국 음악 차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영상에 사용된 배경 음악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멜로디도 있다. 바로 가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도입부이다.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약간의 변주는 있지만 멜로디 자체는 원곡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 또 기존 곡을 빠르게 편곡하고, 집단 군무를 등장시키는 등 남한 대중문화를 참고하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은 선전 선동의 전환이란 분석이다. 북한 내에 지금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남한의 음악이 세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남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리듬이 빠르다 또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세 대들이 즐겨 부르고 그것을 북한 당국이 수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한편으로 법까지 만들어 남한 말을 경계하고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음악은 교묘하게 차용하고 있다. 바깥 세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억누르며 통제된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실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설

북한의 각종 재난 위기

북한이 속 전염병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는 북한에서 얼마 전 세계 각지의 재난 사례들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가 북한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어려움이란 걸 주민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식량과 에너지 위기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애국미' 헌납을 주문했다. 설 명절 당일, 조선중앙TV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겪은 3대 위기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내놨다.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전염병 위기와 기후변화의 후과(결과)로 초래된 자연재해 위기, 그리고 식량 및 에너지(에너지)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들이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먼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원숭이 천연두바이러스, 콜레라 등의 전파 상황을 보여주었다. 특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증은 우

리의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자연재해'를 다루는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수해와 유럽의 가뭄을 자세히 전했다. 구호를 기다리거나, 폐허가 된 집터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였다. 그 배경엔 재해성 이상기후와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식량과 원유 공급량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이 시달린 코로나19와 재해성 이상기후, 식량 부족의 책임은 외부에 있다고 했다. 김정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에 쌀을 바치라는 애국미 헌납 운동도 등장했다.

북한은 직면한 위기를 세계 공통의 추세로 돌리면서 책임을 피하고 있다. 여전히 자력갱생의 기초 속에 위기의 물과 구를 찾고 있다. 주민의 헌신과 헌납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사라지는 은행 영업점

요즘 은행들은 이른바 디지털 금융을 앞세워 현장 영업점을 잇따라 줄이는 추세에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고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내는 사람이 늘면서 내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 등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불편이 커 금융권이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금고 역할을 해오던 어느 은행 점포는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1987년 문을 열었으니까 35년 만이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자 현금 인출기가 있는 365 코너만 남겨 놓고 인근 점포와 통제합된 것이다.

도내 전북은행 영업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년 전 74곳이던 영업점이 현재는 67곳으로 7군데나 문을 닫았다. 이 용객이 줄어든 데다 점포를 줄이는 만큼 운영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은행 점포를 찾

아 처리하는데 익숙한 고�령층은, 그만큼 더 먼 길을 가야해 불편이 한층 커졌다. 주변에 은행이 없고 인터넷 뱅킹 등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최근 혁신도시에서는 한 시중은행이 개점 8년 만에 점포 통제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나서자, 결국 철수 계획을 접고 영업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스스로 비용을 줄이면서도 최소한의 영업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 간의 협력에 의해서 공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에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법도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이 보편화하면서 은행 영업점의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추가 무기 지원 호소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폰데어라이엔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에게 추가 무기 지원을 호소했다.

'록과 오페라' 주제의 2023 망통 레몬 축제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망통에서 연례 '망통 레몬 축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레몬과 오페라로 조형물을 장식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록과 오페라'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